

한국전력공사, 까치집 제거 ‘근로자 안전위협’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까치집 제거사업이 근로자에겐 안전위협으로 내모는 반면 협력업체엔 배불리는 사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은 매년 1월부터 5월까지(3월부터 5월 까지 산란기)를 맞아 조류로 인한 정전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까치집 제거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까치집 제거 작업은 추락과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반드시 2인 1조로 이뤄져야 하지만 한전의 미온적인 관리 감독 아래 협력업체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으로 1인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인 1조로도 어려운 사업을 1인이 진행하다 보니 근로자는 안전에 위협당하고 있으나 협력업체는 한전으로부터 받은 2명의 인건비 중 한 사람 목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근로자는 “한전은 그동안 까치집 제거사업에 100억원 가까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 절반은 불법운영한 협력업체의 지갑에 들어간 것이고, 나머지 반 정도가 직접 현장에 투입된 제거 근로자의 몫이 되었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지금부터라도 한전은

두 눈 부릅뜨고 까치집 제거사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야 하며, 협력업체 또한 불법을 자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근로자 B는 “대부분 협력업체가 까치집 제거에 한 사람만을 내보내고, 서류에는 2인 1조로 했다는 가짜 양식을 한전에 제출, 인건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한전과 사법부는 물론 세무당국과 고용노동부 등은 협력업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 법적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가금현 기자



CTN 신문사, 코로나 예방 ‘손 소독제’ 기증

16일, 서산시자원봉사센터에 전달

CTN 신문(발행인 가금현)은 16일 자원봉사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손 소독제를 서산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윤주문)에 기증했다.

이날 가금현 발행인은 직접 센터를 찾아 손 소독제 2,000개를 전달하며 “사회 곳곳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CTN이 기증한 손 소독제는 휴대용으로 어느 곳에서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기 최고의 제품이다.

윤주문 센터장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그 어느 업체보다 큰 언론사(CTN)가 앞장서 항상 코로나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손 소독제를 기증해 주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 손 소독제는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가금현 발행인도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자원봉사 누적시간이 8,000여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성진 기자

충남 안면도 국내 최대 태양광사업 ‘청신호’

주민·환경단체 환영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 시행될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사업은 지난달 27일 충남도 도시계획위 심의서 재심의 결정을 받으면서 사업의 추진 방식에 대한 행정 절차적인 부분의 보완이 주로 요구됐다. 특히 가장 큰 걸림돌로 거론됐던 지역주민과 환경단체가 지역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바뀌면서 사업에 대한 찬성의 뜻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주요 쟁점 심의위원들로부터 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 확보에 공감을 받은 것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안안면클린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은 안면도 중장리 일원에 위치해 있는 장기 미 개발 된 유류부지인 폐염전과 폐목장에 대해 주민제안사업으로 이뤄졌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 국내 최대 규모인 223MW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 된다.

태안군은 자체적인 대규모 개발행위 허가도 동 사업을 추진할 시 난개발이 예상돼 체계적인 개발과 사후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추진했다.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총 사업부지는 약 189만평으로 군도 3호선 동측 90만평에는 집적화된 태양광 발전단

지를 조성하고, 군도 3호선 서측 약 100만평에는 공공시설 등의 유치를 위한 부지로 무상 임대해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안면도의 체험·교육 관련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스마트팜, 낙농시설, 전망대, 신재생에너지 교육관, 지역토산물 판매장 등의 공공시설 설치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안면읍 승언6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태안군에 기존의 반대 의견서 철회 요청서를 접수했고,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도 사업자 측이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상생방안과 유류 면적에 대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반대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오는 25일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부결될 시, 대

규모 개발행위허가로 추진될 수밖에 없어 태안군이 우려하는 전체 189만평 부지에 대한 태양광 난개발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민·관·사의 분쟁과 갈등이 우려된다.

또 사업시행자가 약속한 공공시설 설치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부지의 무상임대 등도 무산돼 결국 피해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게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사는 오는 25일 충남도의 재심의회에서 통과돼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 측은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됐던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히 보완하는 등, 지역주민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필 기자

한서로타리클럽, 주거환경개선 ‘봉사’



하고 “앞으로도 우리 한서로타리클럽은 초야의 봉사이념으로 지역사회와 세계사회에 다양한 봉사프로그램을 통해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서로타리클럽의 회원가족은 이 같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도배기술 등을

국제로타리 3620지구 서산한서로타리클럽(회장 가복만)은 지난 20일 서산시 해미면 천곡로에 위치한 A모 씨댁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회원 가족은 도배를 비롯한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가복만 회장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 가족의 숭고한 봉사 정신에 감사하다”고 말

전문적으로 배워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왔다.

한편 국제로타리는 세계최대민간 자원봉사단체로 전세계 평화증진, 깨끗한 물 공급, 모자보건 향상, 교육지원, 소아마비 박멸, 환경보존, 세계사회경제 활성화를 위해 120만명의 회원들이 35,000여 클럽에서 활동하며 1600만 시간의 자원봉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가금현 기자

계룡건설 시공 중 내포신도시 아파트’안전’

영하의 날씨’콘크리트 타설’준비 만전



계룡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충남도청(내포)신도시 RH10-1, 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현장에 제기되었던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은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N 취재진은 지난 16일 영하의 날씨 속에 콘크리트 타설 공사로 부실시공 및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제보로 아파트 건설현장 방문,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이 현장은 콘크리트 타설 할 곳에 대해 포장재로 덮어 씌운 뒤 열풍기 등을 가동 15~20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작업 현장은 더워서 잠바를 벗고 들어갈 정도”라고 말하고 “요즘 같이 날씨가 추우면 전날부터 덮어씌워 놓고 가열하게 된다”고 했다. 또 “72시간 동안 야간 당직 등 풀로 가동해 온도를 유지하게 하는 한편, 이와 같은 일은 이곳뿐만 아니라 전체 건설현장이 동일하다”면서 “타설이 끝난 후에도 완전히 덮어씌워 놓고 계속해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진 기자



미래사피엔스예술교육 어디로?

충남의 역사와 미래에 대한 가장 필요한 예술융합교육!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사피엔스 유발하러!

학교밖 청문너머 타이탄이되길 꿈꾸는 청소년이여!

충남문화예술대학원과 미래를 준비하자!

교육문의 : 충남문화예술대학원 입학문의처 novaartcompany7@gmail.com 상담 충남청소년자립지원센터 010 5772 1388 : 비대면 입학상담

작가명 Nova Kim

작품

문명의 배를 타고 진화의 바다를 항해한 인류는

이제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학교밖 청문너머 타이탄이되길 꿈꾸는 청소년이여!

충남문화예술대학원과 미래를 준비하자!

교육문의 : 충남문화예술대학원 입학문의처 novaartcompany7@gmail.com 상담 충남청소년자립지원센터 010 5772 1388 : 비대면 입학상담

“구독자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확실한 정보·진실 된 뉴스를 전달하는 신문

CTN

제보·구독·광고문의: 080-631-8114